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양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

성동구에서는 초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당제2동(동장 전병권) 새마을부녀회(회장 노찬우)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무석)에서도 지난 7월 16일 저소득 독거노인 200여명을 초대하여 삼계탕을 대접했다.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왕십리도선동(동장 김영갑)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희)에서는 지난 7월 16일 무더위에 건강을 잃기 쉬운 저소득 독거노인 15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녀회원들이 직접 인삼, 황기 등 한약재를 넣어 푹 곤 물에 깨끗이 손질한 닭과 찹쌀을 넣어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 삼계탕 150인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그동안 왕십리도선동 부녀회원들은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효도우미 활동 등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왕십리도선동 김영갑 동장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직능단체장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유용미생물제 이용 농축산물 브랜드사업' 추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물 무항생제 인증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의 연계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별화된 '유용미생물제 이용 농축산물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미생물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학적 농법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산 유용미생물은 ▲단백질 분해, 약취제거, 장내 유익균 활성화, 면역력 증강 등에 효과가 있는 바실러스균(고초균) ▲장내 유익균 활성화, 담근먹이 생산시 향미가 뛰어나고 부패균을 억제시키는 유산균 ▲병저항력을 증진시키는 효모균 ▲단백질 분해, 방선균 활성화, 가축분뇨 발효에 효과적인 홍색비유황세균 ▲암모니아 분해에 탁월하고 약취 저감효과가 높은 질화세균 등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2008년 6월에 준공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생산연구실에서 작년까지 242톤의 유용미생물을 한우, 젓소, 돼지, 닭, 채소·특용작물·화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농가에 공급해 왔으며, 농가실증시험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육계농가는 육계 육성을 향상, 초식가축 사육농가는 볏짚 발효사료제조용 유산균 공급으로 조사료의 품질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사용으로 축산농가에 사료효율 증대와 축사내 약취를 줄여 축산환경을 개선시키고, 원예농가에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내병성을 증가시켜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도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질화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을 축산과 원예 600여 농가에 150톤을 공급하게 되며, 농가 미생물 사용량 증가로 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배양기를 추가 설치해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60톤이 공급되었으며, 올 12월 말에 총 200톤, 2011년에 300톤의 공급량이 예상되며, 올해 비료 등록업으로 허가받아 앞으로 작물농가 요구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2010 춘천 닭갈비·막국수축제 개최

강원 춘천시와 닭갈비·막국수축제 조직위원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맛의 향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축제장에서 2010 춘천 닭갈비·막국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S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맛보고, 즐기고 함께 하는 축제로서 닭갈비, 막국수 등 먹거리는 물론 작년에 이어 제3회 춘천향토음식 전국요리대회를 개최하고 고향의 맛, 세계의 맛을 알리기 위해 춘천 닭갈비·막국수 주제관을 만들어 풍성한 볼거리와 최고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또 4~5개국의 유명 요리사를 초청, 세계음식전을 열어 세계요리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지역향토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닭갈비와 막국수의 한식세계화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연다.

충청남도

호우 피해 160억원으로 늘어

지난 7월 23일과 24일 충남지역에 내린 폭우 피해액이 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부여군이 51억원, 보령시 45억원, 서천군 35억원, 청양군 24억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전 집계인 73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도로나 교량 파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57억원이었으며, 사유시설 피해는 5억4,000만원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를 보면 주택 파손이 418채, 농경지 피해가 2,782ha, 가축 폐사가 닭 20만3,000마리, 돼지 475마리 등이다.

폭염에 따른 가축관리 철저 당부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연일 30℃ 이상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관리에 철저를 기해 고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가축 사육 환경조건이 30℃ 이상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육 시설내부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축종별로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해 적정한 체온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우와 닭은 30℃, 젖소와 돼지는 27℃ 이상 되면 고온에 의한 피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식욕저하로 발육과 산유량,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질병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폐사하는 닭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사에 환풍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축사는 천장이나 벽에 단열재를 부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물은 항상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준비하여 필요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축사와 가축에 물을 분무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원활한 사료섭취를 위해서는 시원할 때 사료를 급여하고 비타민과 광물질 첨가제를 충분히 급여해야 일사병과 열사병을 막을 수 있다.

경상남도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혹서기에 대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올해 170억원을 투입해 101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2억여원으로 에어쿨, 환풍기 3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기상청이 지난 7월 22일 폭염주의보를 양산, 김해, 밀양 등 도내 내륙지역에 발령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가축폐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가축 사양관리, 가축방역,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 시·군 및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에 당부했다.

경남도는 축사의 경우 환기·통풍창 확대 개방, 송풍기·대형 선풍기 가동, 지붕 그늘막 설치, 축

사벽 단열재 시공 등으로 온도를 낮춰 한낮 고온에 의한 가축 기립불능증과 열사병을 예방하고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날씨가 무더워지면 가축이 물을 많이 먹는 만큼 수인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소금을 자유로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과 광물질을 충분히 공급, 가축 면역력을 향상시켜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축별 한계온도(한우·닭 30℃, 젖소·돼지 27℃ 이상)가 지속될 경우 사료효율과 증체율, 산란율 등 생산성이 저하되는 만큼 일선 소방서와 협조로 지붕에 물을 뿌려 실내온도를 낮춰야 한다.

경남도는 돼지는 사육밀도를 10%, 닭은 20% 정도 줄여 사육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1일 2회 이상 가축을 예찰해 질병의심축 발생시 관할 시·군이나 축산진흥연구소(지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폭염에 대비해 기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올해 101농가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 축사 내부온도 저하를 위해 2억1,200만원을 투입해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에어쿨(27대), 환풍기(286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여름철 축산재해·가축관리요령 홍보

진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고온 등으로 축산재해 및 가축질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무엇보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일·열사병 방지를 위해서는 축사지붕·벽체 등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운동장이나 방목장 등에는 차양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 축사 지붕 물 분무로 축사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축사에 환풍기 또는 송풍기 설치로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경우 질병 예방차원에서 비타민제, 대사 촉진제 및 칼슘·소금 등 미량 광물질을 충분히 급여토록 하고 수해 발생 때는 부드러운 조사료 및 양질의 사료공급으로 가축이 안정되도록 한다.

특히 여름철 많이 발생하기 쉬운 아까바네, 유행열,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성 질병과 유방염, 소기립불능증, 돼지 살모넬라감염증과 대장균성 설사증, 닭 가금티푸스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방충망 설치와 농장주변과 축사 내외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발생 근원을 없애기 위해 축사 내외부 물웅덩이 생성 방지 및 살충제 살포로 모기 등 해충방제와 밀집사육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축산시설의 파손과 유실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보수 또는 보강과 많은 비로 인한 축대 및 축사시설이 붕괴 또는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자매결연마을에 '우리맛닭' 기증

경북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14일 농촌진흥청에서 15년에 걸쳐 복원한 재래닭을 이용해 만든 믿을 수 있는 맛좋은 토종닭인 '우리맛닭' 병아리 400마리를 자매결연 마을인 범실산양산삼마을에 무상분양 기증한다고 밝혔다.

무상 기증받은 '우리맛닭'은 자연방사로 키워 범실 마을을 찾는 농촌체험 관광객에게 산삼닭백숙 맛 체험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종닭과 산양삼의 절묘한 궁합으로 맛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경주 범실산양산삼마을의 산삼닭백숙은 도시 소비자의 입맛을 감동시켜 범실산양산삼마을을 다시 찾고 싶은 농촌 마을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인증 확대 총력

전라남도는 친환경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농가 2천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나주시를 시작으로 시·군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축산농가 의식전환, 친환경축산 기술습득 및 제도 이해를 위해 찾아가는 적극적 교육을 통해 친환경축산 실천 및 인증확대를 도모해 '친환경 녹색축산' 이미지 선점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1천 750호(전국대비 36%)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축산 인증업무 추진이 미흡해졌고 이로 인해 인증농가 실적이 주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인증 확대를 위한 순회교육계획을 수립,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7월과 10월에 집중해 상·하반기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2~3개 시·군 단위로 묶어 관내 인증 획득을 준비중인 농가 또는 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중 인증을 받지 않는 농가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있는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축산의 필요성,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실무요령 등 농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올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목표 5천호 달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가축 본래의 생태가 존중되고 동물복지가 병행된 '녹색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축 사육환경을 자연환경에 가까운 밝고 청정한 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친환경방목축산 육성, 환기시설 개선, 축사시설 개선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가축의 면역력이 증강돼 각종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이 높아졌다. 실제로 올해 구제역이 경기, 인천, 충북, 충남도에서 발생했으나 전남은 청정화를 유지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열악한 사육환경이 가축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다"며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축산 전남 실현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질병방역 강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친환경축산 실천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설명회 개최



60년 넘게 축산폐수 악취와 수질오염에 시달린 전북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170만㎡)가 철거되고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한다.

환경부와 총리실, 전북도, 익산시 등은 지난 7월 30일 익산시청에서 왕궁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환경부 등은 이 설명회에서 왕궁 축산단지의 축사를 완전히 철거하고 하천과 저수지는 모두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새만금의 오염원을 없애기로 했다.

또 축사 200여 곳 중 160곳을 사들여 대규모 생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이곳을 환경개선 특별관

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과 생활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한센인을 위한 양로시설 신·개축과 소공원을 조성한다.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 1천159억원 중 706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467억원은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사업별로는 휴·폐업 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림 조성(733억원), 생태하천·생태습지 조성(251억원), 한센인 양로시설 신·개축(105억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익산시는 2011년부터 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해 2015년까지 이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왕궁 축산단지 3개 농장에 있는 축사가 모두 철거돼 단지는 물론 만경강 하류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북도와 익산시는 2016~2020년 지방비 1천800억원을 투입해 단지 전체(282만㎡)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 한국 LED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식품클러스터 추가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949년에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된 왕궁 축산단지에는 현재 한센인 700여 명을 포함해 2천 200여명의 주민이 돼지 14만 마리와 닭 5만 마리, 한우 790마리를 키우며 생계를 잇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천톤가량이 매달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으로 흘러 수질과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왕궁 축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수십 차례 논의해서 마침내 해결책을 내놨다”면서 “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한센인의 복지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닭 사육 증가

전북지역에서 사육하는 한우와 육우, 돼지, 닭은 늘고 젓소는 줄었다.

도는 올해 6월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가 33만 천 마리로 2009년 같은 기간(30만천 마리)에 비해 10%, 돼지는 129만8천 마리에서 135만4천 마리로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닭도 3천890만9천 마리에서 4천186만4천 마리로 8% 늘었다.

그러나 젓소는 3만7천 마리에서 3만6천 마리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전북도축산위생연구소,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전북도축산위생연구소가 각종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추가 운영될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결핵 검진, 병성감정, 가공품위탁검사, 원유검사 등 민원 접수처리 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민원 접수와 농가 방문부터 검사 과정, 검사 결과까지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는 그동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전염병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 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우제류와 닭, 오리 사육 농가에 전달, 운영해 오고 있다. 